

한·몽 말 문화 연구 試論

— 한국과 몽골의 말과 관련된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

윤 은 숙

A Research on Comparison of Cultural Idea of Horse Between Korea and Mongolia

— In view of customs related to horse in Korea and Mongolia —

Eun Sook Yoon

ABSTRACT

In Mongolia which consists of nomadic populations, horse has been loved by nomads and considered most important transportation means. Horses have been used when they were making long journey looking for new plain ground for grazing. Therefore, horse is closely connected with Mongolian nomadic culture. In Korea, too, horses had been considered one of most important means for transportation and military.

The symbolism of horse that is represented in both Mongolia and Korea is Heavenly Horse which communicates with the God and it was sanctified as a Sacrificing Horse which was sent to God for sacrifice, and it was even worshiped as Divine Horse, the diety.

As is the case of two of Mongolian customs associated with Mongolian language are "the ceremony of horse's giving birth her young" and "the ceremony of letting the mare go where it was before", all the cases are related with cattle's milk.

The ceremony of "horse's giving birth her young" is the ceremony where people hope that they would see the young can grow well which were born in early summer thus increasing the numbers of horse. To go with this, they perform a ceremony of Chachal in which they sprinkle the best quality white milk which is the symbol of good luck and hope they would produce plentiful of dairy products.

The ceremony of "letting the mare go where it was before" is also the ceremony where people hope to have many new born young horses thus produce more dairy products and Airag for the next year as milking is no more available for that year.

Since the unified Silla Era, Koreans have performed a sacrifice rituals to horse in auspicious day. It's purpose is to see their horses get no disease and bear as many youngs as possible. The Back Jung Je, one of well known festivals in Jeju Island, was originated from people's wish to prosper in stock farming.

It can be said that the custom of Korea and Mongolia related with horse's giving birth was originated from the wishes to god for fertility and fecundity. On top of that, while Mongolians sprinkled horse's milk both on the ground and to the air hoping they would have increased houses and, thus, secure many dairy products, Koreans wish that they would see the increased number of horses and their healthy conditions through heavenly rituals.

(Key words : Back Jung Je, Chachal, Customs, Horse, Horse's milk, Nomadic culture, Product)

I. 서 론

한국과 몽골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많은 유사성과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북아시아 유목적 태반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그 후 오래 정착생활을 해온 한국인과 목축문화를 근간으로 유목생활을 계속해온 몽골인의 문화는 매우 다양한, 유사하거나 나뉠대로 상당히 변형된 관습과 풍속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목축 관행 또한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몽골에서 목축문화의 근간은 유목이다. 유목은 건조지대에서 집합본능을 가진 有蹄類의 飼育을 주요한 경제수단으로 하는 생활양식을 지칭한다(岩村忍畝, 周采赫 옮김, 1988) 유목이라는 생활양식은 대체로 말, 양, 산양, 소, 낙타 등의 가축을 관리하고 사육하면서 풀을 따라 1년을 이동하는 생활이다. 단 목적지도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계절적 이동을 한다. 하절기에는 산의 경사면과 평원에 흩어져 있는 풀을 뜯고, 동절기에는 추위와 적설을 피할 수 있는 산의 남쪽 언덕과 계곡 사이에서 집단생활을 영위하며 겨울을 보낸다. 이러한 이동과 설치를 반복하는 중에 가축들은 봄의 출산으로부터 여름의 비육, 가을로부터 겨울에 걸친 도축과 임신을 한다(杉山正明 지음, 이진복역, 1999). 가축과 함께 이동하는 유목민들의 생활은 거의 이러한 수순에 의해 시스템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목민들의 계절적 이동은 양떼를 위한 이동이라 할 수 있다. 『몽골비사』 118절에 의하면 여름의 첫 달 테무진(Temüjin)과 자모카(Jamoqa)가 동영지를 떠나기 위한 이동을 결정할 때 자모카는 “산에 바짝 붙어 설명하자. 우리들의 말치기들이 오두막으로 가게 하라. 시내에 바짝 붙어 설명하자. 우리의 양치기, 새

끼 양치기들을 골짜기로 가게 하라(유원수역주, 1994)”라고 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동영지인 산지에 머무른다면 말을 먹이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이동하여 계곡에 머무른다면 양이 풀을 뜯기에 좋으므로 양치기에게 적합하다는 것으로, 이동은 양떼에게는 적합하지만 말떼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된다(Б.Я. Владимирцов著, 주채혁譯, 1990). 유목민들은 대략 4월 말경에 동영지에서 이동을 시작하는데, 이때는 양떼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시기로서 목초의 절대 부족으로 양의 폐사율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목축민들은 이들 양떼에게 새로운 풀을 찾아 주기 위해 이동을 시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말은 번식력이 좋고 성장속도가 빠르며 특히 4계절 동안 스스로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는 반 야생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양떼처럼 이동의 필요성이 적은 경제적인 동물이라 할 수 있다. 몽골 초원의 생활은 인간과 가축 그리고 초원의 삼위 일체적 생활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가축에 의존하고 가축은 초원에 의존하고 초원은 다시 인간에 의해 보존된다고 할 수 있다(米内山庸夫, 1998).

목축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몽골에서 말은 전통사회의 중요한 이동 수단이라는 점에서 몽골을 대표하는 가축으로서 목축민들의 특별한 애정과 존중을 받아왔다. 또한 한국에서 말은 교통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신성한 존재로 인식되어 다양한 말 문화가 발달하였다.

한국과 몽골의 말은 양국 목축문화의 주요부분을 형성해 왔다. 특히 말들과 관련된 세시풍속은 각각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에 맞게 발전하여 왔으며, 양국 간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양국의 말과 관련된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試論적으로나마 한·몽 양국의 말 문화를 살펴보고 한다.

II. 한·몽 문화에 나타난 말의 상징성

몽골의 목축은 양, 산양, 소, 낙타, 말 등을 중요한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 가축을 농경사회의 5穀과 같이 몽골의 5畜이라고 한다. 5축 중 몽골의 말은 탈 것이라는 의미에서 어느 가축보다 비중이 크다. 몽골 말은 어깨를 기준으로 할 경우 높이가 대개 122~129cm 사이이며 몸무게는 320~330kg으로 체격 상으로는 유럽 말에 비해 몸집이 작고 순간 속도도 떨어지지만, 추위를 견디는 耐寒性을 가진 체질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지구력이 강하다. 말은 몽골인들의 중요한 재부로 말이 없으면 스텝경제를 경영해 나갈 수 없다. 말은 몽골인들의 교통공구로 전쟁과 위협에 쓰였으며, 또한 말 젖의 공급원이기도 한다. 말은 몽골의 고대사회에서 병력과 씨족의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회의 참가하기를 거절하거나 황제의 선소를 존봉하려 하지 않는 몽골 황실은 늘 말이 수척해져서 갈 수 없다는 것을 구실로 삼고는 하였다(Б.Я. Владимирцов著, 주채혁譯 1990). 말이 없는 목축생활은 다른 가축의 관리 등을 포함하는 진정한 의미의 유목생활 방식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희박하게 한다. 말을 사육하여 운송 및 교통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유목 목축업이 목축인들의 주된 생업이 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이 운송 및 교통수단으로 말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모든 종류의 가축을 흠여짐 없이 사육하고 초지를 찾아 유목하거나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몽골 유목민들은 모든 가축들 중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말을 타고 이동함으로써 쉽게 좋은 초지를 찾아 유목할 수 있었다(A. Ochir, 2004). 또한 몽골에서 말은 사용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선별되어 사육되어 왔다. 몽골 말은 사용 용도에 따라 준마, 일란말, 오르긴(Uurgin) 말,

혼니(Honi) 말 등으로 구분된다. 준마는 경기마로서 몽골 말들 중 가장 우수한 말들이 준마가 된다. 오르긴 말은 오르가(Uurgaa)를 잘 다루도록 훈련된 말로 힘센 말들이 주로 선택되었다. 오르가는 말을 잡는 장대로서 몽골의 목축에서 말을 통제하거나 다른 가축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이다. 혼니 말은 양치기 말로서 이 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순종적이고 안정적인 성격을 지녀야 하고 오랫동안 움직여야 하기에 인내력을 갖춘 말들이 선별되었다.(С.Бдамхатан, 1987) 말은 몽골의 5축 중 뜨거운 입김을 가진 가축이라는 ‘할룽 호쇼테 말(Haluun Hushuutai Mal)’로 불리면서 몽골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몽골에서는 고대로부터 말을 소재로 하는 서사시나 설화, 민요 등이 발달하였다.

한국에는 재래종인 鄉馬(果下馬, 小馬)와 외래종인 몽골말, 서역마 그리고 외래종과의 교접을 통해 탄생한 혼혈종 등 다양한 종류의 말들이 있었다. 특히 제주도 목장에서 목양한 다양한 마종의 준마는 품질이 뛰어나서 어수용으로 바쳐졌다. 제주도의 土馬와 종마는 국내 주요는 물론 중국에 까지 수출되었다(南都泳, 1999). 현재 제주마는 암수 평균 체고가 116cm 정도인 조랑말로서 소형마에 속한다. 제주마는 제주도에서 오랜 세월 지내온 관계로 기후 풍토 등에 잘 적응되어 있고, 체격이 강건하고 번식력이 왕성하다. 105 kg의 짐을 질 수 있고, 1일 32 km씩 22일간을 행군하더라도 잘 견디어내는 체력과 인내력을 갖고 있다. 특히 굵이 치밀하고 견고한 장점이 있다(천천기, 2003).

한국에서 말은 선사시대 이래 교통 통신용, 군사용, 교역용 농경용 식용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용되어져 왔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말의 생산은 나라를 富하게 한다”, “나라의 富는 말의 수로써 결정된다”라고 하여 전국에 53개소의 국영 목마장을 설치(金義淑, 1996)하고, 국

가적으로 말의 수를 증식시키기도 하였다. 민속 문화에 등장하는 말은 신승물, 영험성, 신성성, 의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존재, 재앙을 예시하는 존재, 민중의 이상과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존재, 정력과 지혜로움, 도약(表仁柱, 1999) 등의 상징성을 지닌 동물로 묘사되어 있다.

몽골인들은 모든 가축들 중에서 말을 가장 존중하고 있으며 5축 중 말을 으뜸으로 보아 말을 숭배하고 제사지냈다. 몽골인들의 말 숭배는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관습으로서 청동기 시대의 암각화에는 말을 존중하는 풍습이 반영된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또한 몽골의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무덤들에서도 말을 매장한 뼈들이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몽골인들의 말 숭배를 보여주는 것이다(A. Ochir, 2004). 13세기 교황 인노센트 4세의 사신으로 몽골을 방문했던 플라노 카르피니에 의하면 “몽골인들은 암말과 암당나귀 그리고 안장과 고삐가 달린 수말을 시신과 함께 묻는다. 그들은 또 다른 말을 잡아먹고 그 가죽에다 지푸라기를 채워 넣어 2개 혹은 4개의 장대에 달아 놓는다. 이는 死者가 저승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암말의 젖을 마시며 자신이 탈 말을 증식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몽골족 군주의 장례식에서는 말을 제물로 끌고 와서 말 머리를 아이락으로 깨끗이 씻긴 뒤 말의 몸통으로 4-6개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무덤에 세웠다(E.E. Kuzmina, 김호동역, 1993). 이러한 장례풍속에 나타난 말은 죽은 사람을 사후의 세계로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말이 인간계와 천계를 연결하는 매개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몽골에서는 아끼던 준마가 죽으면 죽은 준마의 머리를 숭배하는 풍습이 있다. 준마의 머리를 마구로 장식하여 작은 언덕이나 몽골의 대표적 신앙물인 오보위에 놓아두고 숭배하였다(Ч.Арь

ясүрэн, Х.Нямбуу, 1991).

『元史』 「祭祀志」에 의하면 “큰 제사를 지낼 때는 말을 불 태웠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몽골의 獻馬 풍습은 오늘날까지 전승된 말과 관련된 대표적인 몽골의 관습이다. 헌마의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백마의 발에 기름을 바르고 무기를 낭송한다. 말의 발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늘로 가는 말에게 먼 길을 잘 가라고 발굽을 박아 주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희생용 말에게 젖을 먹이는데, 이때 말이 젖을 잘 마시지 않으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 말에게 젖을 먹인 후 말의 갈기에 하닥이라는 비단으로 된 푸른 천을 묶는데, 이것은 신에게 바쳐졌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다른 말과 구별하여 신성을 부여하는 표시이다. 목민이 말을 끌고 시계 방향으로 신당을 한 바퀴 돌아 말뚝으로 끌고 가서 묶어 놓는다(장장식, 2002). 티베트 불교 전래 이후 살생을 금지하는 법령에 따라 말을 도살하는 관습이 줄어들고, 말을 순장하여 희생물로 바치는 풍습은 점차 약화되어 말의 일부분을 상징적으로 바치거나 불경을 쓴 것발에 말을 그려 바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근래에는 살아 있는 말 대신에 갈기나 꼬리털을 오보에 바치거나 설령 말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죽이지 않고 하닥으로 묶어 표시한다. 의식에 사용된 말은 신성시하여 함부로 타지 않았고 나쁜 말로 비방하거나 때리거나 도살하여 음식에 사용하는 것을 금기시하였다. 또한 몽골인들은 말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을 히모리(Hiimori)라고 한다. 히모리는 오보에 꽂아두거나 케르에 모셔두고 숭배하였다. 히모리는 행운을 뜻하는 몽골어로 고대에는 天馬가 그려져 있었다고 한다(박원길, 2001). 한국에서도 말 그림은 주로 신승물의 형태를 나타낸다. 서낭신이나 장군이 말을 타고 있는 그림은 마을신앙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말은 신을 태우고 다니므로 신과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였

다. 말은 처음에는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다가 말 자체가 신격화되어 마을 수호신으로 좌정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表仁柱, 1999).

한국문화에 나타난 말의 상징성은 대체적으로 天馬, 獻馬 그리고 馬神 등의 형태를 띠고 있다. 말이 하늘을 나는 천마상은 고구려의 무용총이나 삼실총의 벽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신라의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박혁거세는 하늘에서 내려온 말이 전해준 자줏빛 알에서 탄생하였다. 벽화나 신화에 나타난 백마는 천마로서 한국인들은 의식 속에서 말에게 날개를 달아 마음대로 날아다니게 했다. 이러한 의식은 경주의 천마총의 천마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천마는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매개적 기능을 하는 하늘의 사자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국시대에 이미 천마사상이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任東權, 1995).

말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를 제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에게 바쳐지는 희생의 뜻을 지닌다. 여기에는 소와 돼지도 사용되지만 최고의 제물은 백마였다. 『삼국유사』 권1, 「태종춘추공」조에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文虎(武)왕이 즉위한 5년 을축 8월 경자에 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웅진성에 가서 假王 扶餘 隆과 만나 壇을 만들고 백마를 잡아 맹세하는데 먼저 천신과 산천의 영에게 제사를 지낸 뒤 말의 피를 뿌리고 맹세했다.

또한 문무왕이 당나라와 합세하여 백제의 항복을 받은 뒤 당나라 사신과 함께 웅진성에 행차하여 의자왕의 태자 용을 도둑으로 삼고 말의 피를 뿌리고 회맹하였다는 기사(『삼국사기』 권6, 「문무왕본기」)도 있다. 이 때 신에게 제사하고 맹세를 다지는 歃血에 백마를 희생으로 하였다. 따라서 말은 신에게 바쳐지는 중요한 제물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임동권의,

1999). 몽골에서도 이와 유사한 풍습이 있다. 『元史』 卷149, 「耶律留哥傳」에 따르면 “아울유가가 소속의 부를 거느리고 금산에서 안진을 만나 白馬와 白牛를 목 베고, 높은 곳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며 화살을 쏘아서 맹을 맺었다”하여 백마가 맹세를 다지는 중요한 제물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몽골에서는 전쟁에 출정하기 전 군대의 표상인 纛旗를 앞세우고 전의를 다지며 신에게 기원하는데, 이 때 백마의 목을 쳐서 피를 내고 이 피를 받아 깃발에 뿌렸다(장장식, 2002).

말은 신이한 능력 때문에 마을신앙의 대상신이 되었다. 서해안과 남해안지방, 정선 등의 강원도 산간지역(張正龍, 1988)에서 말을 신으로 모시는 마을 제의가 나타난다.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 신금마을이 당제를 지내게 된 유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나로도에는 도양목장에 속하는 국영목장이 있다. 나로도의 등심마을인 신금리에는 삼백여 년 전 명씨가 입도하여 개촌 당시 밤마다 마을 뒷산 호암산에서 백마가 마을 안산으로 뛰어내리는 괴이한 일이 생겼다. 주민들은 말을 신으로 모시라는 계시로 알고 백마의 상을 조각해 모시고 제를 지내니, 이를 마당제나 당제라 한다(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02).

백마는 말의 신성함이다 흰색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합쳐져서 더욱 강력한 힘을 지낸 존재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나로도의 당제는 풍요와 생산 그리고 잡귀를 쫓아내 마을의 태평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주술적 힘을 가진 백마를 마을신으로 모시고 있다(김종대, 2001).

한국과 몽골문화에 나타난 말은 가족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신과 교감하는 天馬이며, 신에게 바쳐지는 성물인 獻馬로 인식되었고, 그리고 신성한 존재인 馬神으로까지 추앙받는 존재

였음을 알 수 있다.

III. 한 몽 세시풍속에 나타난 말

몽골에서 말과 관련된 세시풍속은 말이 출산하는 여름의 첫 달인 寅日 ‘암말의 씨를 내는 의례’에서 시작하여 가을 戌日 ‘암말을 놓는 축제’로 끝이 난다. 이러한 세시풍속은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어서 초원의 풀이 잘 자라고 말의 수가 증가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어머니 대지의 신과 아버지 하늘의 신에게 기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上村 明, 2002).

말이 새끼를 낳은 당일이나 새끼 낳은 날로부터 3일 정도 지난 후 ‘암말의 씨를 내는 의례(Güünii Ürsiin yoslol)’를 시작한다. 이것은 망아지의 출생과 함께 목축민들에게 아이락이 생기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이다. 말 젖을 가축 부대에 담아 수천 번 이상 잘 저은 뒤 대략 3일 정도 지나면 발효되어 술이 되는데 이 말 젖술을 아이락이라 한다. 『몽골비사』에서도 “아이락 젖는 소리를 듣고 게르를 찾아 간다”라고 할 정도로 아이락 젖는 소리는 한 여름 몽골인들의 대표적인 일상으로서 아이락은 몽골인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음료이다. 말 젖을 짤 때는 먼저 망아지를 묶을 줄인 켈을 게르 앞에 친다. 켈을 향으로 정화하고 그것을 고정시킬 두 개의 말뚝도 버터 등을 발라 축원한다. 젖 짜는 의례에 사용할 암말을 잡을 때는 말을 잡는 장대인 오르가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일에 참가시킨다. 그들 중 오르가를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이 하닥으로 장식된 오르가를 이용하여 그 해 처음 낳은 망아지를 잡는다. 그런 후 망아지를 굴레로 고정시켜서 높은 쪽 말뚝에 밧줄로 묶는다.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태어난 망아지를 같은 식으로 맨다. 새로 태어난 모든 망아지들을 밧줄에 맨 뒤 처음 3마리는 남자가 젖을 짠다. 보통 젖

짜기는 여자의 몫이다. 그러나 의례용 말 젖은 남자가 짠다. 이것은 전통사회에서 남자들이 말 젖을 짜던 습속에서 유래한 것이다. 짠 젖은 가죽주머니에 넣고 휘저어 발효시킨다. 이 의식이 끝나면 말 주인은 참가한 손님들을 집 안에 초빙하여 대접하고 암말의 씨를 내는 의례를 행할 날을 정하여 알려준다. 암말의 씨를 내는 의례날에는 암말이 새끼를 낳았을 때 참가한 사람들이 의례를 행하는 집에 술과 아물, 어름, 치즈 등의 유제품을 가지고 온다. 암말의 줄 말뚝의 윗부분에 흰 펠트 천을 깔고 상위에 양고기, 아이락, 젖, 술 등을 차려 놓는다. 상 앞에는 통에 젖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5가지 색으로 장식된 의례용 나무 주걱인 차찰을 가로로 놓는다. 그리고 오르가의 앞 부분을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젖을 담은 나무통을 양쪽에서 들고 이동한다. 그 해 가장 먼저 태어난 망아지부터 시작하여 새로 태어난 다른 망아지들을 오르가를 이용하여 잡아서 굴레로 고정시켜 놓은 뒤 오르가를 게르 뒤에서 앞문 쪽의 방향으로 기대어 놓는다. 이 일이 끝나면 게르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고 밖으로 나와서 암말의 젖을 짠다. 집주인을 선두로 해서 9명의 남자가 암말의 줄 말뚝 옆에서 갈색 말을 타고 게르 문 앞에 오면, 안주인이 은잔에 담은 젖을 들고 나와서 맛보게 한다. 말을 탄 사람들이 집을 해가 떠서 지는 방향으로 돌고 다시 암말 줄 말뚝의 윗부분에 칸 펠트 천 앞으로 간다. 그 때 집주인이 말에서 내려서 젖을 담은 나무통에 묶은 줄을 오르가에 끼워서 순한 말을 탄 두 사람에게 준다. 이 사람들이 출발하자마자 갈색 말을 탄 사람들 중 한 남자가 차찰로 젖을 각 방향으로 뿌린다. 양의 차찰의 식에서는 여자가 젖을 짜고 젖을 뿌리지만, 말의 경우는 남자가 젖을 짜고 젖을 뿌린다. 젖을 뿌리는 의식을 거행할 때 모인 사람들이 다 각각 말을 타고 뒤따라가며 모두들 암말 줄 말

뚝을 해가 떠서 지는 방향으로 3번 돈다. 이때 하늘과 대지와 물의 주인인 신에게 최상의 젖을 바치면서 신에게 자비를 구하는 축사를 읊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의 水源에 있는 초원으로 이주하여
 준마와 암말이 새끼를 낳아
 때에 따라 적당한 비가 내리고
 주르치드의 초 메르겐으로
 젖을 매고
 오이라드의 하르 히라오로 하여금
 오르가에 새끼를 붙잡게 하고
 탕가드의 체첸으로
 술을 걸게 하고
 차가타이 무당에게
 차찰을 하게하고
 차츠갈즈 무당에게
 아이락 통을 잡게 하고
 가장 높은 칸인 영원한 푸른 하늘
 칸의 지역의 물, 무수히 많은 별들
 황금색의 태양과 황금색의 별
 행복한 날 좋은 달을 찾아 젖을 뿌립니다.
 젖을 뿌리는 이유는
 푸른 하늘에서 운명을 받아 태어난 푸른 암말의 젖
 아무도 먹지 않고 오직 푸른 망아지만 먹었습니다.
 흰색의 젖을 뿌립니다(X.Сампилдэндэв, 1985).

축사를 한 뒤 뒤따라오던 3명 중 한명은 “체젠드 차드(Chgeend chad, 배부르다)”라고 반복해서 외친다. 암말의 젖 말뚝을 해가 떠서 지는 방향으로 3번 돌고 난 뒤 게르 앞에 와서 말 위에서 내린다. 이 때 오르가는 게르에 기대어 놓고, 게르 안의 상석에 있는 상 위에 들고 온 젖을 놓는다.

차찰의식을 행하고 난 후 종마의 갈기와 제일 먼저 낳은 망아지의 머리에 하닥을 매달아 신성함을 표시하고 축복해준다. 암말 줄 말뚝

주변에 흰 펠트로 만든 상위에 차려진 양고기, 술, 유제품 등을 펠트와 함께 들고 아주 무거운 것을 드는 듯이 힘들어 하는 모습으로 “내리자”라고 하면서 쉬고, “웁기자” 하면서 젖 주변과 게르 주변을 왔다 갔다 한다. 얼마 후 게르 문 앞에 와서 “씨의 음식이 도착했다”고 주인에게 알린다. 집주인이 게르에서 나와서 “잘 다녀오셨냐”고 물으면 “바얀 볼라그에서 쉬었다가 바얀 에르데네에서 밤을 보내고 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근처에 있는 지명 중 ‘부유함’을 뜻하는 바얀(Bayan)을 넣어서 대답한다. ‘씨의 음식’을 주인에게 올리면 주인은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씨의 음식’을 들고 있던 사람은 “천 마리 양떼의 선두에 서는 양, 만 마리 양떼에서 제일 먼저 가는 양입니다. 임신한 암말이 금으로 된 가슴과 은으로 된 엉덩이를 가진 망아지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치기 위해 가져온 양입니다” 라고 말하고 주인에게 양고기와 유제품을 바친다. 주인은 두 사람을 지명해서 양고기와 유제품을 가축부대 앞에 놓게 한 뒤 손님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 양의 목과 위는 나누어 주지 않는다. 양의 위는 풍요를 뜻하고 목은 강함을 뜻하기 때문에 암말 줄 말뚝 위에 놓아둔다. 손님들에게 양고기 국을 대접하면서 잔치가 벌어진다(X.Сампилдэндэв, 1985).

몽골에서 봄부터 초여름은 가축들이 새끼를 낳는 계절이며 각종 가축의 젖과 유제품이 흔해지는 풍요로운 시기이다. 몽골인들은 가축의 출산을 알리고 축원할 때 주로 가축의 젖을 바치는 풍습을 행한다. 즉, 가축들이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건강하게 자라서 수가 증가하기를 기원하고, 이와 더불어 유제품이 더 풍부해지기를 기원하면서 길상을 의미하는 흰색 젖의 특상품을 하늘 또는 땅에 바치는 행사를 거행한다. 몽골에서 가축의 출산은 겨울 내내 굶주려 있던 가축들과 목축민들에게 흰색의 젖과

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목축민들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축제가 다(윤은숙, 2004) 몽골인들은 '음식의 최상품은 흰색의 젖이고 신뢰의 최상은 하얀 마음'이라고 하여 젖의 색인 흰색을 가장 순수하고 정결한 것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젖을 뿌리는 차찰의식은 하늘과 대지와 물의 신들에게 가축의 출산을 알리고 가축으로부터 얻은 젖의 최상품을 바치는 몽골 특유의 관습이다. 이러한 차찰의식을 통해 몽골인들은 초원의 풀이 잘 자라고 가축의 수가 증가하여 삶이 풍요로워 지기를 기원하였다(С.Бдамхатан, 1987). 암말의 씨를 내는 의례에서 상위에 놓은 양고기는 그 해에 맨 먼저 태어난 망아지를 대신한다고 할 수 있다. 망아지를 붙잡은 바로 그 오르가로 붙잡았기 때문이다. 이 양고기 일부를 젤을 맨 말뚝 옆에서 뼈만 남을 때까지 태운다. 이것을 '씨를 녹인다' 든가 '씨를 넣다'라고 하는데 망아지 대신 양고기를 태워 하늘의 신에게 바침으로서 내년에도 망아지가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씨'라는 관념에서 보면 곡식의 일부가 씨앗으로서 번식의 원천이 되듯이 자연이 준 선물의 일부를 자연으로 되돌림으로써 그 혜택이 더욱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바람이 이 의례의 밑바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씨 즉 생명의 씨는 아이락 형태로 공중에 뿌려지고 1년 후 새로운 생명이 되어 탄생하는 것이다(上村 明, 1999). 또한 가축의 번식과 관련된 금기로는 가축을 매매하거나 사여할 때 말의 재갈을 물려서 보내지 않는데, 재갈을 물려 보내면 가축이 번식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또한 가축의 고기, 가죽, 털 등은 매매할 수 있지만 가축의 뼈만을 매매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순수 유목민의 경우에는 유제품도 매매하지 않는다. 가축의 뼈와 유제품을 매매하는 것은 자신의 행운을 파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기시하였다(札奇斯欽, 1992).

여름의 가운데 달에는 '에린 고르반 나담(Eriin gurban naadam)'이라는 몽골의 국가적 축제가 개최된다. 이 축제에서는 말타기, 활쏘기, 씨름 등의 남성 3종 경기가 열린다. 말타기 대회에 참가하는 말들은 대회 기간에 맞추어 한 달 전부터 기수와 함께 특별한 규칙에 따라 훈련에 들어간다. 말이 마시는 물의 양을 조정하고 매일 정오에 양털을 말에 덮어씌운 뒤 산을 오르게 한다. 이렇게 10일 정도 훈련하면 거의 땀을 흘리지 않게 되고 남은 지방을 소모하게 된다. 기수는 보통 15세 이하의 남녀 아이로 그 중 6-8세 어린이가 가장 많다. 대회 당일 아이들은 독특한 출정복과 장군 모자를 착용하고 손에 기를 들고 행사장에 들어온다. 그리고 경기에 참가하는 말을 타고 행사장을 3번 돈다. 이들이 행사장을 나가 출발지로 떠날 때 "투메니 에흐(Tümenii Ek, 만 마리의 으뜸)"라는 노래가 연주된다. 출발선을 떠난 말들이 결승점에 이르기 시작하면 다시 "투메니 에흐"가 연주된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영접하듯 그의 주위에서 같이 말을 달린다. 결승점에 도달한 말들은 1등부터 25등까지 순위를 부여받는다. 우승마를 비롯한 5등까지의 말들은 광장을 3번 돌면서 위용을 과시한다. 고삐를 높이 들게 하고 축사와 함께 아이락을 머리와 엉덩이에 뿌려준다. 어린 기수들과 말 주인에게 아이락이 하사된다. 몽골인들은 말을 사랑하는 민족답게 그 지방에서 배출한 명마를 기념하기 위해 말 경기에서 하사받은 말의 칭호를 지역 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몽골의 나담문화는 역사의 변천과 함께 그 속에 사회 경제 종교 등의 문화까지 합체되어 몽골인들 특유의 향기를 내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나담은 본래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었으나 점차 민족적인 집단놀이문화로 발전하게 되었다(박원길, 2001).

가을의 마지막 달에는 암말을 놓는 “의례 (Güü Tabik yoslol)”를 행한다. 적당한 날 말뚝을 모아놓고 암말 줄 말뚝 기둥에 향을 피운다. 암말의 젖을 짜고 망아지의 굴레를 풀어서 줄 말뚝을 철거하고 막대기를 빼서 생긴 구멍에는 젖을 붓고 보리와 쌀을 넣어서 채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년에도 말들이 잘 자라고, 아이락과 말 젖이 풍부해지기를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암말을 놓는 집은 아이락을 가족부대에 담아 준비해 두고 잔치를 베푼다(Ч.Арьяасүрэн, 1991). 그리고 아이락을 가득 채워서 잔치상에 올려 이웃, 형제, 촌락 전체가 모여 나이 먹는 것을 축복하면서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즐긴다. 이렇게 암말 줄 말뚝을 철거하고 암말 놓는 잔치에 노래와 악기 연주 등으로 흥을 돋우고 한해의 잔치를 끝낸다(계.강토 그토흐, 2001).

한국에서는 정월의 첫 말날을 上午日이라 한다. 새해 첫 말날에는 말을 잘 거두어 먹인다. 소의 경우처럼 말에게 야채를 삶아 콩과 섞어서 주고 마제를 지내거나 고사를 지낸다. 또 이 날 장을 담그면 맛이 좋다고 전해진다. 첫 말날 장을 담그면 장맛이 좋다고 하는 것은 말이 콩을 좋아하므로 콩을 원료로 하는 장을 담그는 것이고, 말날에 담근 장은 말피처럼 빛깔이 진하고 맛이 있다는 것이다. 사천에서는 용날과 뱀날에 장을 담그면 구더기가 끓기 때문에 이 날만 피하고, 말날처럼 털 있는 짐승의 날에 장을 담그면 좋다고 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같은 말날 중에서도 戊午日은 戊와 茂의 음이 같으므로 말이 잘 자라고 번식도 잘한다고 해서 좋아하고, 丙午日은 丙과 病이 음이 같기 때문에 병을 연상시키므로 금기시하고 불길하게 여기기도 하였다. 제주도에서는 井不掘水라고 하여 이 날 우물을 파지 않았다. 우물을 파서 흙을 진드르면 흉사가 발생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김종대, 2001). 또한

말날은 기가 왕성하므로 먼 길을 나서기엔 좋은 날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 날이 말의 기가 왕성한 날이라는 유사원리에 따라 인간이 말날에 먼 길을 나서기에 적합한 날로 인식한 것이다. 말날은 말에게는 기를 회복할 수 있는 날이고, 인간에게는 기가 왕성한 날이어서 인간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는 날이다(표인주, 2002). 10월의 오일에는 유별나게 행사가 많다. 원래 10월은 제천하던 큰 행사가 있었기에 그 전승이 오늘날에도 남아 있어 10월 오일은 가을 행사를 지내는 날로 되어 있다. 10월이면 농가에서는 가을걷이도 다 마쳤으므로 식량은 풍족하고 한가한 계절이다. 말날을 맞이하여 떡을 하고 음식을 차리고 술을 빚어 고사를 지냈는데 이를 가을 고사라 한다. 가을 고사 음식은 이웃 간에 서로 나누어 돌린다. 고사는 주부의 의해 장독대에서 지내거나 아니면 부엌, 안방의 삼신할머니, 대청에서 성주 앞에 음식을 놓고 소박하게 지내는데 때로는 단골무당을 불러서 하는 일도 있다. 말날 고사떡으로 팔떡을 해서 마구간에 차리고 말의 무병을 비는데 병오일인 경우에는 고사를 지내지 않는다.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시대에는 국가 주도로 마제를 지냈는데, 馬祖祭는 仲春, 先牧祭는 仲夏, 馬社祭는 仲秋, 馬步祭는 仲冬 등 각각 길일을 택하여 말에게 제사하였다. 말의 1년 생활을 주기로 하여 생활무대에 따라 제사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 만물이 싹트는 시기인 봄에 말의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馬祖祭라고 하고, 先牧祭는 만물이 성장하고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인 여름에 처음으로 방목한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월동준비와 아울러 마구간에 들어가야 할 시기인 가을에는 토지신에게 馬社祭를 지냈다. 말들이 가장 활동의 제약을 받는 시기인 겨울에는 운동부족에 따른 신체적 허약함 때문에 많은 재앙신이 해를 끼칠 수 있는 시기이므로 馬步祭를 지냈다. 이들 마제는

모두 말의 성장 번식을 기원하는 제의로서 말의 성장 번식에 해를 끼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表仁柱, 1999). 제주 농가에서는 10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가을 떡이라 해서 햇곡으로 시루떡을 써서 토광이며 더주단지, 시나락섬에 놓았다가, 소와 말에게 먹이고 이웃에 돌려 나누었다. 또한 추수를 마친 10월의 上巳日에는 방목하던 말들을 구분하기 위한 표시인 낙인을 찍거나 귀를 찢어 표시하고 제물을 차리고 제를 지내게 되는데 이를 ‘귀표고사’라고 한다. 이 고사는 “우마를 지금부터 간수하니 곡식밭을 주의하라”는 경계의 의미를 지닌다. 말의 경우는 대체로 귀를 자른 뒤 도려낸 귀의 한 부분은 구워서 제물로 쓴다. 제의가 끝나면 마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 곡식을 먹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국립민속박물관, 1998). 몽골에서는 새로 태어난 망아지들이 한 살이 되면 주로 말의 넓적다리, 앞다리 등에 낙인을 찍거나 귀에 다양한 형태의 가위자국 표시를 하여 소유를 나타냈다. 興安嶺 일대의 몽골인들은 가축이 어렸을 때 가축의 귀를 자르는 풍속을 가지고 있다. 4, 5월에 갓 태어난 가축들의 왼쪽 귀를 가로로 약간 자르는데 이렇게 하면 새끼들이 건강하게 자라며 가축이 번창한다고 믿었다(鳥居人類學研究室編, 1992).

또한 제주도에서 행해지는 목축의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백중제이다. 백중제는 백중날 倣子들이 떡과 밥, 술 등의 제물을 준비하여 마소를 방목하는 望童山(망을 보는 동산)으로 가서 그 해의 목축이 잘되기를 기원하는 제의이다. 음력 7월 14일 자시에 제를 지내는데 테우리 귀신(목축의 신)을 위해 목자와 우마의 주인들이 제사를 올리는 것으로 育畜繁盛과 기르는 우마에 탈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리는 고사이다. 일반 농가에서는 백중날 제물을 차리고 ‘바령땀(牛馬糞田)’에서 우

마를 모아 가두어 제사를 지낸다. 관에서는 馬祖壇에서 우마의 무병과 번식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南都泳, 2003).

IV. 적 요

유목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몽골에서 말은 중요한 이동수단으로서 목축민들의 특별한 애정과 존중을 받아온 몽골을 대표하는 가축이다. 몽골에서 말은 가축을 홀어짐 없이 사육하고 새로운 초지를 찾아 유목하거나 장거리 이동시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사용 되었다. 따라서 말은 몽골의 목축생활 양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도 말은 교통수단과 군사용 등으로 사용된 중요한 가축이었다.

한국과 몽골의 문화에 등장하는 말은 신성물, 신성성, 의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존재, 재앙을 예시하는 존재, 민중의 이상과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존재, 정력과 지혜로움, 도약 등의 상징성을 지닌 동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말은 신과 교감하는 天馬이며, 신에게 바쳐지는 성물인 獻馬로서 존중되었고, 그리고 신성한 존재인 馬神으로까지 추앙받는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몽골에서 말과 관련된 세시풍속은 말이 출산하는 여름의 첫 달인 寅日 ‘암말의 씨를 내는 의례’에서 시작해서 가을 戌日에 ‘암말을 놓는 의례’로 끝이 난다. 암말의 씨를 내는 의례에서 암말을 놓는 의례에 이르기까지 말과 관련된 몽골의 세시풍속은 가축의 젖과 연관되어 있다. 암말의 씨를 내는 의례는 말이 새끼를 얻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로서 이때는 각종 가축의 젖과 유제품이 흔해지는 풍요로운 시기이다. 몽골인들은 가축의 출산을 알리고 축원할 때 주로 가축의 젖을 바치는 풍속을 행한다. 즉, 말이 새끼를 낳는 초여름 새끼가 건강하게

자라서 수가 증가하기를 기원하고, 이와 더불어 유제품이 더 풍부해지기를 기원하면서 길상을 의미하는 흰색 젖의 특상품을 하늘, 대지 그리고 물의 신에게 뿌리는 차찰의식을 거행한다. 차찰의식을 통해 몽골인들은 초원의 풀이 잘 자라고 가축의 수가 증가하여 삶이 풍요로워 지기를 기원하였다. 가을의 ‘암말을 놓는 의례’ 역시 말 젖짜기를 그치면서 다음 해 새끼 말들이 많이 태어나서 더 많은 젖과 아이락을 얻기를 기원하는 축제임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이래로 국가가 주도하는 마제가 개최되었는데, 馬祖祭는 仲春, 先牧祭는 仲夏, 馬社祭는 仲秋, 馬步祭는 仲冬 등 각각 길일을 택하여 말에게 제사하였다. 이들 제사는 말의 무병과 성장 번식을 기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목축의례인 백중제 역시 그 해의 목축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제의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정월의 첫 말일인 上午日에 장을 담그면 맛이 좋다고 전해진다. 첫 말날 장을 담그면 장맛이 좋다고 하는 것은 말이 콩을 좋아하므로 콩을 원료로 하는 장을 담그는 것이고, 말날에 담근 장은 말피처럼 빛깔이 진하고 맛이 있다는 것이다. 말은 기가 왕성하므로 말날은 먼 길을 나서기에 좋은 날로 믿고 있다.

한국과 몽골의 말과 관련된 세시풍속은 말의 출산과 관련하여 다산과 풍요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에게 기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몽골인들이 말 젖을 하늘과 땅에 뿌리는 차찰의식을 통해 말의 번식과 흰색의 유제품이 풍부해지길 기원하였다면, 한국의 세시풍속은 제천의식을 통해 말의 번식과 무병을 기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북아시아 유목적 태반을 공유하고 있는 몽골과 한국의 목축 관행의 상사 및 상이점, 스텝과 농경지대라는 목축 환경의 상이성과 그를 기반으로 전개되어 온 목축 관행의 역사적인 변용들을 구체적으로 조

목조목 따져 밝혀가는 본격적인 연구과제는 시론 차원의 이 논문에서는 일단 문제로만 제기해 두려 한다.

V. 인 용 문 헌

1. 三國史記.
2. 三國遺事.
3. 몽골비사. 1994. 유원수역주, 서울, 해안.
4. 元史. 1980. 新校本, 臺北, 鼎文書局,
5.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제주도세시풍속,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152-153.
6. 국립민속박물관. 1998. 한국의 세시풍속 II,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7. 게.강토그토호. 2001. 몽골의 세시풍속, 몽골의 무속과 민속,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민속학연구소, 303-304.
8. 金義淑. 1996. 濟州道 牧子服 研究, 濟州의 民俗IV, 제주도, 제주도지편찬위원회, 157.
9. 김종대. 2001. 33가지 동물로 본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서울, 다른세상, 186-188.
10. 南都泳. 2003. 濟州道牧場史, 경기도, 한국마사회박물관, 441-442.
11. 박원길. 2001.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역사와 민속, 서울, 민속원, 492-498.
12.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02. 남도문화연구, 순천,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13. 오인혜. 1999. 성행위, 초원의 대서사시-몽골 유목문화, 용인, 경기도 박물관, 1999, 61.
14. 윤은숙. 2004. 한·몽 가축의 출산문화 연구 試論-한국 소와 몽골 양의 출산 관습과 금기조항을 중심으로-, 白山學報제69호, 서울, 白山學會, 441.
15. 任東權. 1995. 韓國의 말과 민속, 馬事博物館誌, 경기도, 한국마사회박물관, 29-30.
16. 임동권의. 1999. 한국의 馬민속, 서울, 집문당, 183-184.
17. 장장식. 2002. 몽골민속기행, 서울, 자우출판사.
18. 張正龍. 1988. 江原道の 馬信仰考, 韓國民俗學 18, 民俗學會, 115-127.
19. 정형호. 1997. 몽골 한국의 말문화 비교 고찰, 한국민속문화연구총서 1, 서울, 중앙대학교 한국민속학 연구소, 164.
20. 천진기. 2003. 문화의 비밀을 푸는 또하나의 열

- 쇠, 한국동물민속론, 서울, 민속원, 294.
21. 表仁柱. 1999. 한국의 馬信仰과 말(馬)의 기능, 국제아세아민속학, 제3회 국제아세아민속학회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집, 29.
 22. 表仁柱. 2002. 민속에 나타난 마문화(馬文化)의 실태와 의미, 馬事博物館誌, 경기도, 한국마사회 박물관, 84.
 23. 米内山庸夫. 1998. 蒙古草原, 東京, 改造社, 107-108.
 24. 上村 明. 2002. 馬の窄乳儀禮 グーニー・ウルス・ガルガハ・ヨス再考-儀禮の政治性と身體性をめぐって-, 北アジアにおける人と動物のあいだ, 東京, 東方書店, 301.
 25. 上村 明. 1999. 목축의 기술과 의례, 초원의 대서사시-몽골 유목문화, 용인, 경기도 박물관, 113.
 26. 杉山正明지음. 이진복 역. 1999. 유목민이 본 세계사-민족과 국경을 넘어-, 서울, 학민사, 31.
 27. 札奇斯欽. 1992. 蒙古文化與社會,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42.
 28. 岩村忍 씀. 周采赫 옮김. 1988. 遊牧史上에서의 몽골의 위치-유목의 개념정의 문제와 함께-, 江原史學第4輯, 춘천, 江原大學校 史學會, 105.
 29. 鳥居人類學研究室編. 1992. 土俗學上より觀たる蒙古, 서울, 민속苑, 1002.
 30. A. Ochir. 2004. 몽골인들의 말문화, 한국축산문화의 始原, 몽골-시베리아 순록·양유목의 原型탐구, 춘천, 한국초지학회·강원대학교동물자원공동연구소 학술심포지엄, 3-5.
 31. Б.Я. Владимирцов著. 주채혁 譯. 1990. 몽골사회 제도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55-56.
 32. С.Бдамхатан. 1987. БНМАУ-ын угсаатны зүй, улсы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УБ, 63.
 33. E.E. Kuzmina, 金浩東 옮김. 1993. 古代 유라시아 말 信仰의 起源과 傳播, 韓國古代史論叢 4, 서울, 韓國古代史研究所, 360-361.
 34. Х.Сампилдэндэв. 1985. Малчин ардын зан үйлийн уламжлал, улсы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УБ, 55-61.
 35. Ч.Арьяасүрэн, Х.Нямбуу. 1991. Монгол ёс заншлын дунд тайлбар толь, Хүүдий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УБ, 68-70.